20th Anniversary Report

스무살 아하!는, ing

I·SEOUL·U YMCA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CONTENTS

03. 아하! 20년, 그럼에도 ing

아하! 소개

04. 아하는?
05. 아하 생각
06. 아하! 하는 일
07. 아하는 ○○○이다

아하! 발자취

08. 히스토리
10. 아하 뉴스
12. 한눈에 보는 아하
14. 사진으로 보는 섹슈얼리티 체험관

아하와 사람들

19. 10대, 아하×섹슈얼리티
23. 20대, 아하에서의 배움이 일상으로
25. 성문화 활동가, 보람과 고민
29. 양육자, 6년 동안 성교육을 신청한 이유
30. 아하지기, 아무튼 출근

20살을 축하해요. 그리고 ing

33. 아하에게 바란다
36. 따박따박, 새로운 섹슈얼리티 문법 만들기
37. 아하비전
38. 아하에게 한마디

발행일 | 2021년 11월 · **발행처** |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한국YMCA) · **발행인** | 이명화 · **편집인** | 김예지 · **디자인** | 디메인
전화 | 02-2677-9220 · **이메일** | aha@ahacenter.kr · **홈페이지** | www.ahacenter.kr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아하! 20년,
그럼에도 ing

2001년 5월 3일 봄날은 “아하!”라는 이름을 건 ‘청소년성이야기 놀이터’가 오픈되는 것을 세상에 알린 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센터의 공간 이 곳저 곳에서는 10대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아하!” 하고 내 뱉는 감탄사와 버무러져 이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말이기도 했고 누군가에는 너무나도 하고 싶은 그러나 꼭꼭 숨겨 두었던 말들, ‘성’스럽고도 ‘음란’한 그러나 ‘재미있는’ 성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교육과 상담이라는 틀로 얽히고 설키면서 청소년성문화 담론을 이야기 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10대들은 막상 성이야기를 하고 나니 나와 세상은 달리 보인다고 했습니다. 나와 친구들의 질문과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모두’가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하! 아하~로 함께 공명했습니다. 생명·평화 성문화 물결을 만들기 위해…

10년을 넘어 20년으로 오는 길에는 만만치 않은 걸림돌과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성’스럽고 ‘음란’하기만 하다고 생각하는 성이야기를 ‘어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것이 누군가에겐 불경스럽고 심히 걱정되는 일이었나봅니다. 차별과 폭력의 장벽에 저항 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두려운 일이었고, 드러내지 않았던 존재를 드러내고 서로 환대하는 우리의 몸짓이 그저 생경하기만 했던가봅니다. 센터활동을 방해하고, 관련기관에 민원을 넣고, 막무가내 전화로 활동가들에게 혐오의 말을 쏟아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움직임에 빈구석이 무엇이었나를 돌아보며 청소년들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에 주목했습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연구하고 실천하며 양육자와 교사, 청소년상담자와 지도자들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연대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의 비젼은 어린이 청소년의 성건강복지가 확장되는 사회, 차별과 폭력, 성산업카르텔을 끊어내는 주인공을 키우는 그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아하!는 오늘도 늘 처음처럼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청소년의 아하! 소리가 센터 공간에서 줄어든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N번방이 던져준 파장과 질문은 여전히 디지털세상 속 청소년들의 안부를 묻게 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5년 10년 후 청소년들의 소리, 그 색깔은 무엇일까요?

이제 스무 살이 된 아하!는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ing! 하겠습니다.

아하! 20년간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 명 화

아하는?

MISSION 미션

성인지적 성교육·상담과 문화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성문화를 일군다.

VISION 비전

VISION 슬로건

생명·평화 성문화가 흐르는 십대 물결 만들기.

VISION 선언문

아하를 만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에 대해 편안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성적 주체로 인정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성문화를 이끄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1년부터 서울시와 YMCA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기관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시설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청소년 특화시설입니다.

아하! 생각

배우는 성

몸과 마음,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함께 성(sexuality)을 배우고 깨닫는 장입니다.

행복한 성

성적 의사결정권, 성적 행복추구권, 민주적이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만들고자 실천하는 장입니다.

스무살 아하는 ing

주체적인 성

힘과 권력에 의해 성을 도구화하는 폭력적인 성,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상업적인 성을 거부합니다. 생명과 평화를 가꾸는 주체적인 성을 지향합니다.

평등한 성

나이가 어려서, 여자라서, 또는 남자라서 성적 소수자라서, 장애인이라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지향합니다.

아하! 하는 일

01 포괄적 성교육

사업명	한 줄 소개
어린이 체험형 성교육	배우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청소년 체험형 성교육	청소년 스스로 삶에 대한 이해와 권리를 높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찾아가는 성교육	성에 대한 알 권리와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대상별·성별·연령별·지역별 맞춤형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02 성인권 상담

사업명	한 줄 소개
면접상담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내담자 맞춤형 1:1 성상담 서비스
온라인상담	아하센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및 카카오톡 채팅상담을 통한 온라인 기반 성상담 서비스
성상담전문가양성워크숍	청소년 성상담자 양성을 위한 워크숍
성상담사례연구워크숍	청소년 성상담 사례 연구 및 슈퍼비전 워크숍

03 성문화 활동

사업명	한 줄 소개
청소년 참여 자치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치활동
성문화 공론장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의 장
캠페인/문화활동	성건강권 보장 및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 캠프, 축제, 문화활동

아하는 ○○○이다

청소년들이 말하는 아하는 어떤 곳일까요?

아하는 게임 이다
게임도 재미있고 아하도 재미있기 때문에

아하는 마음 열쇠 이다
창의적으로 색다르게 교육을 진행하니까, 집에서도 못했던 말을 맘 편히 털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하는 비빔밥 이다
재료가 다양하고 맛있는 비빔밥처럼 교육내용도 다양해서

아하는 우리집 계단 이다
계단을 오르며 체력과 근육을 얻는 것처럼 아하센터에 올 때마다 지식을 하나씩 알아가기 때문에

아하는 고민 상담사 이다
사춘기를 겪게 된다는 게 불안했는데 아하센터에 와서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아하는 고민 인형 이다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더 공감할 수 있어서 편하게 느껴져서

아하는 리코더 이다
리코더가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것처럼 각자 성장 과정이 다른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아하는 확성기 이다
'섹스'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어 본 게 처음이었고, 거부감이 사라져서

아하는 쿠키반죽 이다
어떤 모양이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쿠키반죽처럼 어떤 지식이든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아하는 내게 꼭 필요한 것 이다
성관계시나 스킨십 등의 상황 속에서 내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아하! 히스토리

2001~2005 자리매김기

01 아하! 출발
- 청소년이 진행하는 아하!센터 개관식(2001)

02 성교육 놀이터
- 성교육전시관('01) 자기주도형 섹슈얼리티 체험관('02)으로

03 섹슈얼리티 말하기
- 성이야기 작품공모전('01~)
- 청소년 성문화축제 (아하!습격사건)('01~)

04 성착취 근절x법안 개정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운동('01~)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2006~2010 창의성 발현기

05 문화예술과 성교육
- 페미니스트 공간디자이너, 영화감독, 사진작가, 성교육 전문가가 함께 기획한 섹슈얼리티 체험관 V3 ('04)

06 1차 청소년성문화 연구
- 연구조사 세미나
- 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04)

07 아동청소년성폭력근절운동
- OO초등생 지원활동(추모제, 재판 모니터링)('06)
-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운동

08 사각지대 10대 지원 멘토링
- 성매수피해청소년 멘토링, 매칭캠프, 희망찾기캠프('06~'07)

09 전국네트워크
-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표준콘텐츠 SAY개발 및 설치 컨설팅('07~)

10 맞춤형 성교육
- 섹슈얼리티 체험관 V4 발달단계 별로 주제가 세분화된 성교육('08)
- 저소득층 찾아가는 성교육 아하!해피버스팅('07~)

2011~2015 양적확대기

11 2차 청소년성문화 연구
- 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10)

12 모두를 위한 섹슈얼리티
- 섹슈얼리티 체험관 리뉴얼(V5) ('12) : 어린이체험관 확장, 다양성·퀴어· 춤과 성교육
- 모두를 위한 체험공간, 화장실 설치

13 3차 청소년성문화 연구
- 성문화 정책토론회('13)
- 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13)

2016~2020 도전과 전환기

14 또래간 성폭력 통합접근
- 성폭력 가해자 액션러닝 집단상담 워크숍(사랑의 교실)('13~)
- '또래간 성폭력 문화 개선을 위한 청소년 100인 원탁토론회' 개최('15)
- 치유와 회복집단상담('15)

15 청소년 지도자 연수
- 스웨덴 성교육 전문가 초청 상담 세미나('13)
- 사이버 성교육 원격 연수('14)
- 대안학교 교사 성감수성 워크숍('15)

16 페미니즘 리부트x성평등
- 여자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캠프 ㄷㄷㄷ 프로젝트('15)
- 혐오에서 낙태죄, 정치, 탈코르셋까지 '섹슈얼리티 아카데미'('18)

2021~ 영향력창출기

17 마을x학교x성평등
- 서울시 #성평등 프로젝트 실시 ('17~'20)

18 스쿨미투, 백래시
- 스쿨미투 발생학교 회복 프로젝트 ('19)
- 학교 성폭력 2차 가,피해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19)

19 남자청소년 성교육
- 남자 청소년 성(평등) 교육 길 찾기 1~2 ('19~'20)

20 디지털 성폭력
- 'OOO 동영상을 검색한 당신에게 던지는 2차 가해 경고장' 홍보 캠페인('19)
-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19), 교육, 상담('19, '20)

21 포괄적성교육
- 국제성교육가이드라인 공식 번역 보급('20)
- 포괄적성교육 보급 워크숍('21)

22 스무살, 아하는 ing
- 20주년 기념 온라인 페스타('21)
- 남자청소년성교육연구소('21)
- 청소년 성문화 공론장('21)
- 청소년 성문화 실태조사('21)
- 성상담 지침서 개정판 발간('21)

아하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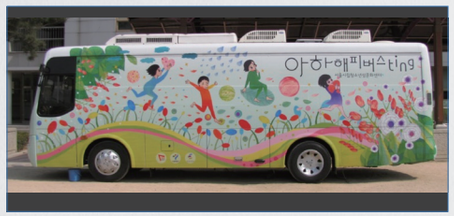
AHA! NEWs

청소년 性문화 센터 '아하' 재개관

2001. 05. 03 동아일보

청소년 성교육 "해피버스" 달린다

2007. 06. 24 세계일보



눈높이 성교육‥ "인형극으로 성교육한다"

2011. 04. 01 머니투데이

"청소년 성욕 억압만 하지 말고 피임 등 다양한 성교육을"

2011. 05. 10 서울신문

서울시 청소년성교육, 세계서도 통했다 - '세계성(性)건강학회' WAS 수상

2011. 06. 13 뉴시스

성에 대한 호기심 이곳서 다 푸세요

2001. 05. 07 국민일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토론회

2002. 05. 31 오마이뉴스

'내 몸에 말걸기' 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사라져요

2005. 12. 12 한겨레

성교육은 민주적 관계 맺기를 가르치는 것

2011. 12. 12 경향신문

'단순한 장난?'‥ 청소년 100인, 또래 성폭력을 말하다

2015. 11. 24 EBS

서울시, '아동·청소년 또래 간 성폭력' 117인 원탁토론회

2014. 11. 28 시사타임즈

"디지털성범죄 죄의식 없는 청소년 '떡잎' 때부터 개입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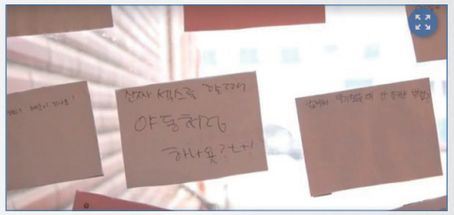
2021. 09. 07 국민일보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2차 가해 중단 경고장 이미지 퍼져

2019. 03. 14 YTN

학교에선 못하는 질문, 여기선 빵빵 터집니다

2015. 08. 23 오마이뉴스



"우리에게는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하다"

2018. 02. 27 여성신문

서울시, 29일 남자청소년 대상 성교육 세미나 개최

2018. 11. 26 시사타임즈

'꿈 실은 배' 타고 성평등 섬으로 떠나보자!

2019. 11. 25 한겨레

'생리는 왜 하지?' '야한 팬픽 보고파' 여성 청소년 성교육 캠프 열려

2016. 07. 25 여성신문

"많은 부모들 n번방 사태 개탄하면서도 디지털 성폭력 잘 몰라"

2020. 05. 27 한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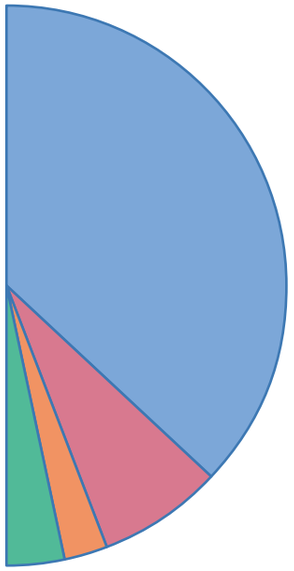
"아빠 '미투'가 뭐야" 설명 어렵다면, 서울시 센터로

2018. 04. 08 머니투데이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평등 성교육'… 성별 고정관념 줄이고 성인지 감수성 높이고

2019. 12. 20 뉴스앤조이

한눈에 보는 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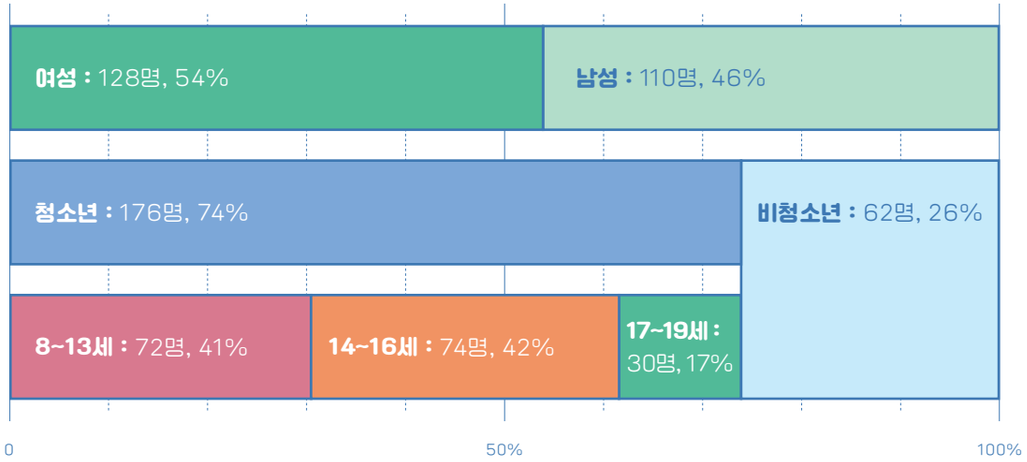
20년간 아하를 다녀간 사람들

1,277,80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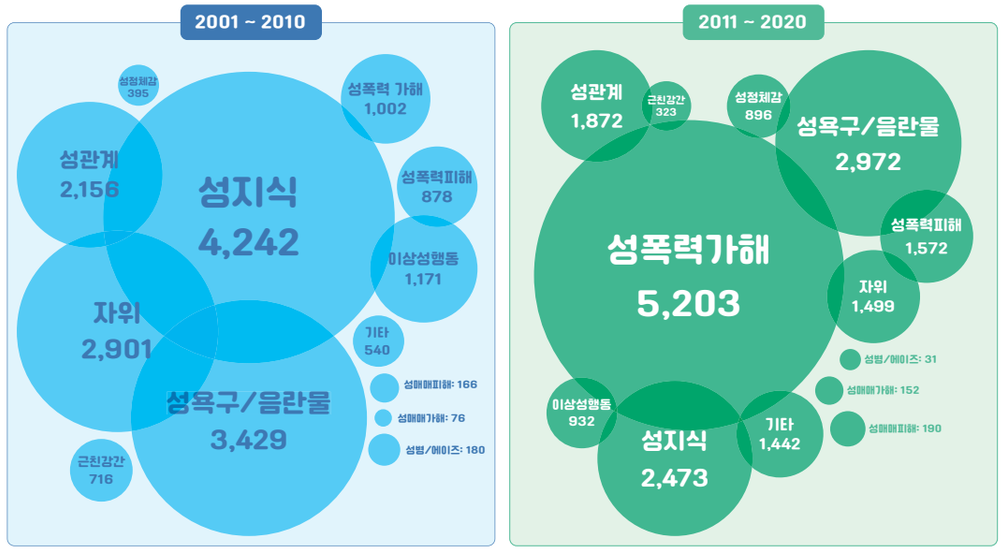
- **교육** 948,259명(74.2%)
- **문화** 183,276명(14.3%)
- **활동모임** 63,320명(5.0%)
- **상담** 82,953명(6.5%)

20년간 아하가 하루(평균) 만난 사람들

총 238명



연도별 성상담 주제 (단위: 건수)



연도별 프로그램

2001 ~ 2005

전시실 기행 yes와 no 사이 댄스테라피 부모와 함께하는 성교육 성 이야기 작품 공모전 몸 이야기 클럽 **성교육 체험관**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 영화 클럽 면접 상담, 집단 상담 섹슈얼리티 포럼 **바닷가 이동거리 상담** 안티 성폭력 페스티벌 사춘기로의 여행 청소년 기끼깡 캠프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와우 북 페스티벌 남자청소년 성교육 성교육과 춤이 만나다 찾아가는 성교육 성교육과 춤이 만나다 성교육 뻔뻔한 쌍쌍 파티 또래지기 **모의법정 'i love myself'**

2006 ~ 2010

스.친.소 여우사이 **아동성폭력 위기지원** 기끼깡캠프 **해피버스ting** 또래지기캠프 반성매매 나는야 또래 상담자 액션스쿨 **사각지대 십대 멘토링** 안녕! 놀자!웃자! 아하하하하하 섹슈얼리티 아하!청소년성문화축제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 찾아가는 성교육 스포츠 성인권 교육 연.상.연.하 **섹슈얼리티** 청소년운영위원회 **놀이터** Sexuality Fun Show

2011 ~ 2015

또래간 성폭력 대안찾기 섹슈얼리티 아카데미 **성폭력 통념 해소, 성교육 길찾기** 성문화 프로젝트 지원 **원탁토론회** Ya!동아리 성상담 전문가 워크숍 **성장놀이터** 성상담 사례연구 워크숍 **마성캠프** **모링프로젝트** 아웃리치 **사춘기 파티** ㄷㄷㄷ캠프 10대 성문화운동 활동가 워크숍 **섹슈얼리티 지도그리기** 꿈을 심는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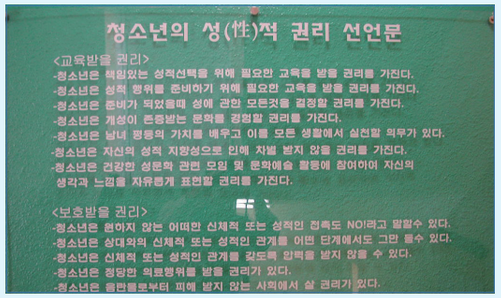
2016 ~ 2020

양육자와 함께 하는 사춘기로의 여행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상담** 성교육 지도력 양성 워크숍 **성평등 한컷 공모전** 라면말고 피자 먹고 갈래? 99년생을 위한 어른이 성교육 성문화특급 **성문화 연설대전** 00(공공) 월경대 프로젝트 **마을속 성평등 학교 만들기** 성문화 마을 축제 **안녕 페미니즘 스쿨미투** 사랑의 교실 **회복프로젝트** **연예 기획사 연습생 성교육**

섹슈얼리티 체험관 사진전

Ver.1~2 한땀 한땀 손으로 만든 성교육 놀이터

#몸 #관계 #다양성 #성관계 #피임 #성병 #인공임신중절 #성상품화
#성폭력 #성정체성 #성역할고정관념 #성적의사소통 #성건강 #성적사회화



섹슈얼리티 체험관 사진전

Ver.3 문화예술과 함께 한 섹슈얼리티 체험관

#나만의 섹슈얼리티를 찾아서 #섹슈얼리티 놀이터 #낯선 나와 만나기
#청소년 또래집단 성문화 탐색 #성감수성 #성적의사결정능력

섹슈얼리티 체험관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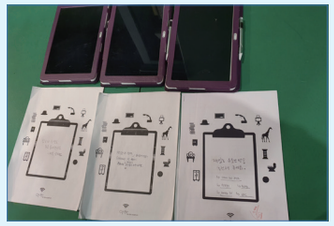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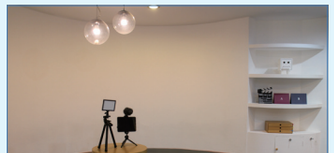
Ver.4 대상 맞춤형 섹슈얼리티 체험관

#성적 존재로서의 나 만나기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사춘기로의 여행 #몸이미지 #연애
#피임 #스킨십 #역사 속의 성 #성폭력 #사회 속 성문화 비판적으로 읽기
#배려와 존중 문화 만들기 #성감수성 #성적 의사소통 #어린이 체험관 #청소년 체험관

섹슈얼리티 체험관 사진전

Ver.5 모두를 위한 섹슈얼리티 체험관

#페미니즘 #스쿨미투 #형오표현 #미디어리터러시 #퀴어 #디지털성폭력예방
#성적자기결정권 #젠더 #성지식 #섹슈얼리티 #사춘기 #몸이미지 #감정
#또래 성폭력 #연애 #성평등 #경계존중 #외모지상주의

아하와 사람들

19. 10대, 아하×섹슈얼리티

23. 20대, 아하에서의 배움이 일상으로

25. 성문화 활동가, 보람과 고민

29. 양육자, 6년 동안 성교육을 신청한 이유

30. 아하지기, 아무튼 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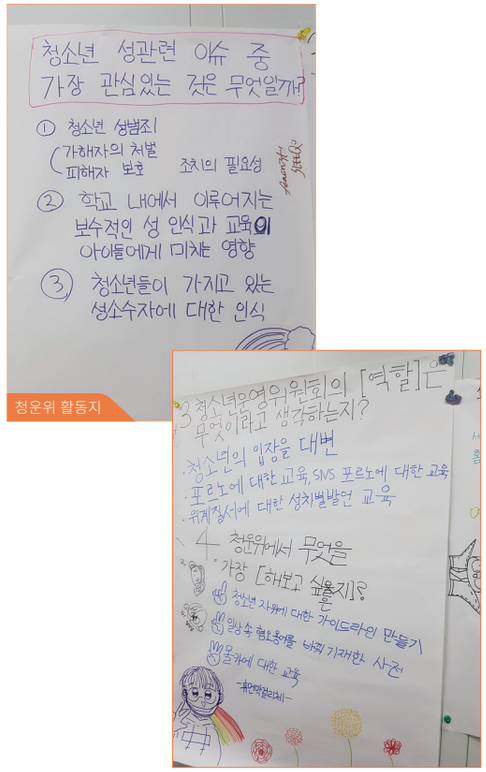
10대, 아하X섹슈얼리티

아하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페링페링단을 만났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경험은 어땠는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청소년이 정책, 교육, 콘텐츠를 직접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운영 위원회 | **예리, 차차**

청소년 운영위원회(이하 청운위)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센터를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며, 새로운 성문화를 만드는 자치위원회입니다.



청운위 활동지

1. 청운위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예리 페미니즘 페스티벌 축제, 정책 제안, 자위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차차 성평등 한컷 행사 준비, 토크쇼 패널 참여, 낙태죄 폐지 시위 발언

2. 청소년의 시선으로 센터의 시설, 프로그램, 사업 등을 모니터링해 주셨는데 모니터링하실 때 어떤 부분 주요하게 보셨나요?

차차 재미, 내용, 트렌드

재미 - 청소년의 입장에서 진짜 재미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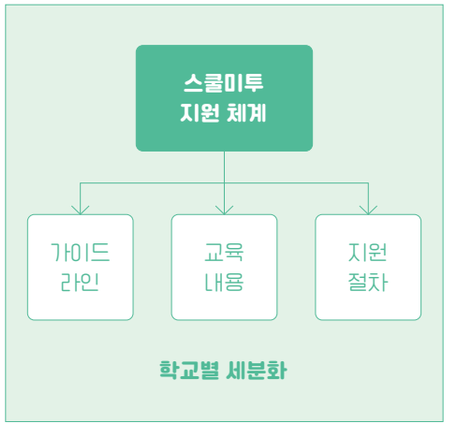
내용 - 틀에 박힌 이야기는 아닌지

트렌드 - 홍보 방식, 내용이 트렌드에 맞는지

3. 청소년 정책 제안 때 다양한 정책(생리대 자판기 확대 설치, 성건강 의료복지 서비스, 교내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시설 지원, 생활복, 주기적인 성평등 교육 등)을 제안했는데 이후에 반영이 되었나요? 여전히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예리 작년부터 학교에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되었어요. 이 점은 체감하고 있는데, 그 외 다른 정책은 전혀 체감되는 바가 없어요. 특히 스쿨미투 정책은 여전히 부족해요.

차차 맞아요. 학교별로 세분화된 스쿨미투 지원 체계가 필요해요.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교육 기관마다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는 입시에 직결되기 때문에 피해를 말하기 어렵고,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보다 발화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공간이에요.

고등학교 - "신고했다가 생기부에 적히고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사립학교 - "스쿨미투 터져도 어차피 가해 교사 안 바뀌고 계속 있어"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무슨 일 생기면 말하라고 하는 게 안일하고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세분화되지 않은 지원 체계가 가장 아쉬워요.

4. 아하 활동을 하면서 나에게 생긴 변화가 있었는지?

차차 혼자 책을 읽다 보면 '내가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누구에게 물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아하센터를 다니면서 제가 가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어요.

"내가 맞는 길로 가고 있구나"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구나"

5. 앞으로의 아하에게 바라는 점

예리 아하센터를 모니터링할 때 청소년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하는 건 프로그램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홍보, 시설 모니터링은 자주 했지만 프로그램 내용은 자주 하지 않아 아쉬워요. 프로그램 내용을 자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면 좋겠어요.

차차 청소년이 직접 강사가 되어 교육하거나 사업, 콘텐츠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요. 당사자인 청소년이 영상, 미디어 트렌드가 어떻게 생기고 없어지는지 제일 잘 알기 때문이에요.

"페미니스트가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청소년 문화비평단(페링페링단) | **곰돌이, 문희, 역학**

청소년 문화비평단은 페미니즘 관점으로 대중문화를 비평하는 청소년 동아리입니다. 카드 뉴스, 영상, 에세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 페미니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역학 물리를 전공으로 하고 싶은데, 물리 과목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여자라서 물리를 못한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처음엔 물리를 관둬야 하나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어요.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이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하고 싶은 거 계속할 거다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페미니즘은 내가 원하는 걸 계속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

2. 페미니스트가 된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곰돌이 제가 페미니스트가 되고 난 후 엄마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회사 갈 때 어차피 남자들은 화장 안 하는데 여자라고 할 필요가 있냐고 말하니까, 엄마도 그 말 듣고 요즘 많이 안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사촌들에게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자랑까지 하셨어요.

3. 페링페링단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기대되는 활동이 있나요?

문희 제가 실천력이 약한데 콘텐츠를 완성했다는 게 신기했어요. 페링페링단에서 들었던 여성주의 콘텐츠 분석 강의도 기억에 남아요. 평소에 예능을 제작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정보가 없었어요. 여성주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강사님한테 예능 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질문하니 '재미'만 고려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콘텐츠 제작을 할 때 도움이 됐어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보는 경험"

모두 여성주의 관점으로 아이돌 춤을 배우는 활동이 가장 기대돼요. 제가 엄청난 몸치라 저만 뚝딱거리진 않을지 걱정되는데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페미니즘" X "댄스 클래스"

4. 역학님이 만든 콘텐츠 중에 '우리는 각자의 페미니즘을 가진다.' 라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역학 사람마다 가지는 페미니즘이 의미가 다르잖아요. 페미니즘에서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꾸미는 걸 좋아하면 페미니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꾸미니까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무언가를 하면 페미니스트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결국 페미니스트 전체 파이(세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자신을 검열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으로 본인을 정체화해서 페미니스트가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5. 문희님은 스포츠 유니폼 속 여성혐오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성별에 따라 유니폼이 다른 걸 비교하니까 확실히 여성 선수들이 성적 대상화되는 게 확연하게 보이더라고요. 만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문희 운동복이면 당연히 운동선수의 편의를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성적 대상화된 유니폼이 선수를 위한 옷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콘텐츠를 만들면서 기사를 많이 찾아봤는데 여자 선수들이 저렇게 입어야 경기를 보지 이런 댓글이 많아서 화가 많이 났어요.

6. 앞으로 아하센터, 페링페링단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모두 첫 번째는 페링페링단 활동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기수제로 저희가 1기 내년에 2, 3, 4기로 이어지며 오래가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페링페링단처럼 여성들이 하는 활동이 좀 더 홍보가 잘되면 좋겠어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현재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왔을까요. 당사자의 이야기 속에서 아하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무엇을 더 채워야 할지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나아갈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대, 아하에서의 배움이 일상으로

청소년 때 아하센터에서 활동하고 현재까지 인연을 맺어가고 있는 청소년 동아리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아하센터에서의 활동 경험이 현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사회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또래지기 | **다인**
야동아리/월경서포터즈 | **현석**

또래지기는 청소년 성문화 또래 지도자 동아리, 야동아리는 남자고등학교 성문화 동아리로 즐거운 성문화를 만들기 위한 청소년 자치 모임입니다. 월경서포터즈는 평등하고 안전한 월경 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포터즈 모임입니다.

1. 아하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다인 아하에 와서 처음으로 퀴어퍼레이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가보고, 영화 '두 개의 문'을 보았고, 인권 관련된 활동도 많이 했어요. 퀴어퍼레이드에서 받은 콘돔을 친구들에게 나눠준 적도 있는데 고맙다고 한 친구들도 있고 이게 뭐냐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하에서 했던 활동들이 그 당시 저에게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2. 현석님은 현재까지도 월경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계시죠?

현석 네. 요즘도 월경 교육을 듣고 있어요. 그 외에도 캠페인, 교육 지원, 월경대 자판기 모니터링을 해요. 활동하면서 월경용품 화학성분이나, 다양한 월경용품 종류를 알게 됐어요. 새로운 월경용품이 있으면 여동생이나 여자친구한테 소개해주기도 해요.

3. 다인님은 최근에 학보사 활동으로 아하센터에 모두의 화장실 취재를 요청했어요. 어떻게 요청하게 되었나요?

다인 비대위(학생회)에서 모두의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학우들이 반대하면서 취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커뮤니티를 보니까 학우들이 모두의 화장실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옆 칸에 다른 성별이 있다는 데 불편함,

부당함, 당혹스러움을 갖고 있었어요. 아하에서 활동하면서 모두의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어서 아하에 있는 모두의 화장실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기사 내고 학내 취재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취재를 하는 모습이 좋다는 피드백을 들어서 '잘 선택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모두의 화장실

4. 아하 활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다인 그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또래지기 활동이 젠더사회학이구나 싶은 게 많았어요. 또래지기에서 처녀막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제로 거리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녀막이 없다는 걸 알고, 왜 우리는 처녀막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왜 우리사회에 처녀막이 중요하게 통용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사회에 계속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학과로 전공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줬어요."

현석 원래 이런 인터뷰도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먼저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성격도 아니었는데, 아하센터에서 활동하면서 내 의견을 표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조금씩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들도 배우고 많은 인연들도 만나서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말하는 능력이 생기고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5.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은?

현석 최종적으로는 청소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일단 지금은 교직원 계약 때까지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알아보려고요.

다인 NGO나 학생 사회에서 일을 할 때 보상이 있으면 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돈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어요. 나중에는 여성, 소수자,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싶어요.

아하센터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이 생긴 현석님.
또래지기가 끝나고 몇 년 후 대학교 학보사 편집국장이 되어 아하센터의 모두의 화장실을 취재하러 온 다인님. 각자 자기만의 빛을 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문화 활동가, 보람과 고민

수년간 성교육, 성상담을 한 섹슈얼리티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성문화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해온 활동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을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요."

교육 활동가 | **광옥, 미정, 희영, 혜경**

1. 다년간 성교육을 하셨는데, 성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미정 저희 부모님은 예전에는 큰 관심 없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어떤 교육하는지 하나하나 물어보시고는 주변에 자랑하시더라고요.

2. 교육할 때 기억에 남는 질문은? 혹은 많이 받아본 질문은?

광옥, 희영 주로 자위, 성관계, 만족감, 정상성의 기준과 관련한 질문을 했어요.

'자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관계할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나요?'

'야기는 어떻게 생기나요?'

'성기(음경) 크기는 몇 센티미터가 평균인가요?'

3. 성교육을 하면서 중요하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희영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을 많이 던지려고 노력해요. 성적자기결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질문을 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선택지를 함께 찾아보고 그중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해요.

"자위했을 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나?"

"성기의 크기가 왜 중요할까?"

"어떤 월경 용품을 쓰고 싶지?"

"나는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미정 관계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중해서 얘기해요.

4.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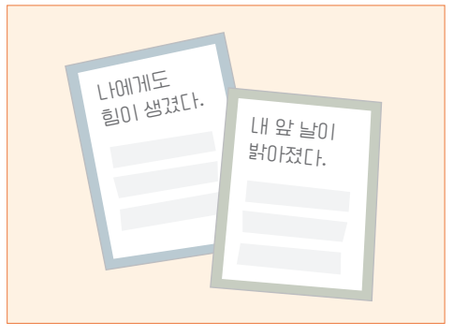
미정 우리 반의 성차별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평등한 반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여자 청소년이 체육 시간에 축구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남자 담임 선생님이 여자가 무슨 축구를 하냐고 했대요. 그동안 쌓였던 걸 울면서 말하던 그 청소년이 몇 년간 기억에 남아요.

혜경 나중에 성교육 강사가 돼야겠다고 한 청소년이 기억에 남아요.

희영 반 남학생들이 성희롱해서 싫었는데 성교육 시간에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대신 해줘서 자기에게 힘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또 다른 경우는 학교 폭력 피해를 본 아이였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야기를 자신을 괴롭힌 애들에게 말해보겠다고, 내 앞 날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소감에 써 놓은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요.

5. 지금까지 잘 해온 나에게, 동료에게 해주실 말도 있을 것 같아요.

희영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기면서 하려고요. 교육하러 갈 때 선생님들 만나면 반갑고 재밌잖아요. 같이 힘내자고 했던 말이 늘 고마웠어요. 오랫동안 함께 하면 좋겠어요.



혜경 몇 년 전 가족이 떠났는데, 아하가 없었으면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바쁘게 교육하지 않았으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과 보낸 시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고, 참 잘 이겨냈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하! 나의 운명의 수레바퀴.

교육 활동가 | 고은영

타로카드 10번은 운명의 수레바퀴로 불린다. '당신에게 방향의 전환이 될 시기. 운명이 굴러가는 바퀴라면 어떻게 굴러가느냐는 조종키의 주인공인 자신에게 달려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끊임없이 변화하며 변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출처: 네이버)

2009년이었다. 아하!에서 본격적으로 활동가로 시작했던 때가. 올해로 12년째. 아하는 그 사이 스무 개의 나이테를 만들어 온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되었다. 내가 아하!에서 '진짜' 인생을 시작한 것은 행운이었다. 그 많은 곳 중에 어떻게 아하! 였을까? 그것도 성(sexuality)을 다루는 곳이라니. 전혀 의도하거나 계획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의 힘이 이곳으로 나를 이끌었음이 분명하다.

내가 '아하!'에서의 삶을 '진짜'라고 하는 이유는 드디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종키의 존재를 알게 하고 만지고 운전할 수 있게 도와준 많은 아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센터장님이 써 주신 대학원 추천서 내용은 아하!가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잘 표현한다. '이 나라의 성역할 규범에 아주 잘 부합된 '여성'의 삶을 살다가 우연한 인연으로 아하에 들어와 공부하고 활동을 하면서부터 비로소 '인간'으로 살게 됐다'라고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을 의심하고, 당연함이 만들어진 토대를 궁금해하고 구조와 담론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하!가 아니었으면 나는 질문해 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을 것이다. '여성'으로서의 나의 삶을 의심해 보기에 성(sexuality) 만한 것이 없으니까. 아하!에 와서 처음 맞닥뜨린 질문은 '십대의 성관계 어떻게 생각하는가?'였다. 지금이 아닌 11년 전이었고, 그때도 여전히 아하!는 래디컬 했다.

아하는 스터디로 종종 밤에 불을 밝혔고, 막걸리 집 뒤풀이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맛을 느끼게 했고, 사회. 문화적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격려했으며 모르는 것에 관한 학습을 독려했고 교육 후 나를 돌아볼 때마다 가려지지 않던 수치심을 더 나은 교육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위로해 줬던 사람들이 있었다. 너무나 멋진 사람, 사람들로 만들어진 곳이 아하!였다. 그 속에서 경험한 삶이 나의 '진짜' 삶이었던 이유이다.

성(性) 만큼 이렇게 끈질기게 앎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주제는 없다. 성 만틈 공부를 해도 한계를 느끼게 하는 주제도 없다. 그럼에도 공부하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해 준 곳도 아하! 만 한 데가 없었다. 아하!는 앎에 대한 희열과 존재감과 나의 생존에 더없이 중요한 자궁이었다. 그런 아하!를 나는 너무 사랑한다. 지나간 사람들도 사랑한다. 남아 있는 사람들도 사랑한다. 앞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그들의 동네가 되도록 나는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이곳을 떠나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아하!는 여전히 내 운명의 수레바퀴인 변화와 성장이 될 것이다. 한 개인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성장 아닌가. 지금까지 함께해 주었던 아하!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상담 활동가 | **루루, 파인, 토토, 링랑**

1. 언제부터 아하에서 활동했나요?

루루 저는 2011년도부터 사이버 상담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파인 저는 14년 정도 했어요.

링랑 저는 활동한지 7년 됐어요. 성을 다룬다는 게 어려웠는데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응원도 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하는 과정을 밟다 보니 지금 이 순간을 맞게 된 것 같아요.

2. 상담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주제로 상담을 많이 하시나요?

루루, 파인, 토토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성폭력 관련 상담이 많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성의 문제지만 본질은 그 뒤에 또 한 다발이 있어요. 복합적인 문제지만 상담 쪽에서는 왜 그럴까 봤더니, 가족 내에서 공부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고, 돌봄 공백이 생기기도 하면서 청소년들이 마음 붙일 곳이 없어져요. 마음이 허전할 때 채팅을 하는 거죠. 그럼 가해자들이 접근해서 온라인 그루밍을 해요. 양육자들은 청소년 자녀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용돈 없다’고 책임을 돌리시는데, 저희는 양육자한테 ‘양육자는 검사나 판사의 역할이 아니라 변호사의 역할이다’라고 늘 말해요. 청소년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자녀의 편이 되어 어떻게 하면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야기해야 해요.

3. 선생님들이 성상담을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을까요?

루루 청소년에게 교육적인 이야기만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에는 의문을 좀 갖고 있어요. 누구한테든 편안한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해요. ‘이번 상담이 끝나고 다른 문제 혹은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숙제를 늘 갖고 가죠.

4. 앞으로 아하에게 바라는 점은?

모두 첫 번째는 상담 기본 회기가 10회기인데 15회기로 늘어나면 좋겠어요. 제가 만나는 내담자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요. 5회기 이상 지나가야 겨우 라포가 생겨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때 딱 종료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아쉬워요. 그리고 청소년보다 양육자를 먼저 상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럴 때 10회기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기본 회기가 더 늘어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청소년 성상담하는 데가 많지 않고 성상담은 급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신청했을 때 바로 상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산이 더 많아져서 내담자가 대기 없이 바로 상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링랑 서로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워크숍도 하고 소풍도 갔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마스크 쓴 채로 보거나 화면을 잠깐 보니까 얼굴도 잘 모른다는 점이 안타까워요. 서로 상담하면서 생기는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큰 힘이 되고 오래 활동하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섹슈얼리티에 관한 개인적인 질문부터 일상 속 성차별, 온라인 그루밍, 학교 폭력까지 청소년의 가장 가까이에서 섹슈얼리티 이슈를 함께 고민한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양육자, 6년 동안 성교육을 신청한 이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아하센터의 성교육을 신청해주신 양육자를 만났습니다.
정효순님이 6년간 빠짐없이 성교육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하센터의 성교육은 내 몸을 사랑하게 하는 교육이에요”

어린이 체험형 성교육 신청 양육자 | **정효순**

1. 다년간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신청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함께 성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좋은 이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내용이 심화되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아하센터의 성교육은 자기를 바로 알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내 몸을 사랑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성교육을 통해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면 좋겠다’ 하고 바라셨던 기대가 있으시다면?

자신의 몸에 대해 긍정하고,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랐습니다.

3. 교육을 받은 후 자녀분, 양육자님의 변화, 도움이 된 부분, 좋았던 부분 등이 있었나요?

아이에게 물으니 거울을 보며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자아를 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TV를 보다 무심결에 제가 연예인의 몸을 평가하면 아이는 ‘불편하다’,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고 표현할 줄 알게 감수성이 자란 부분에서 대견하기도 합니다.

4. 성교육은 교육장을 넘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에서 양육자님이 실천하시는 성교육이 있으신가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표현할 때 그 감정을 듣고 공감해 주는 것으로 아이와 대화를 이어 갑니다. 또한 아이가 스킨십을 불편해하면 사과하고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스킨십을 합니다.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페미니즘과 관련한 기사나 책, 영화도 함께 보는 편입니다. ‘82년생 김지영’, ‘며느라기’ 등을 함께 보며 생활에서 느꼈던 차별을 이야기해 보기도 합니다.

5. 아하!센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점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려요.

예약해서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 기회가 희소하다는 점이 아쉽죠. 그리고 1년에 2번으로 짧게 받는 교육이 아쉽습니다. 또한 6명, 4명 등의 더 적은 소수그룹 교육도 있으면 좋겠어요.

아하!센터에서의 성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 속 성교육까지 실천하고 계시는 양육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쉽게 성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하지기, 아무튼 출근

08:00 ~ 10:00
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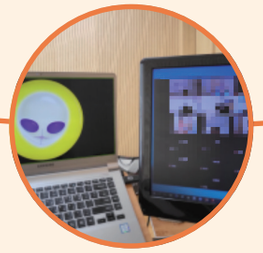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지옥철을 피하기 위한 8시 출근자부터 1분이라도 더 자는 게 좋은 10시 출근자까지.

08:10
고양이, 식물 챙기기

도착하면 동네 고양이들 아침을 챙기고 화분에 물을 준다.

08:20
체조

아침 체조를 시작한다. 8시간을 책상에 앉아있기 때문에 몸이 항상 굳어있다.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다.



08:30
오전 업무

상담팀은 면접 상담, 교육팀은 체험관 성교육, 활동팀은 행사(온라인 성문화 페스타 등) 준비를 한다.

1. 어쩌다가 이 판에 발을 담그게 되었는지...

-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나무늘보였는데 친구가 이 판이 재밌으니 같이 하자고 꼬드김. 근데 그 친구는 공시 공부 다시 해서 공무원 됨;;
- 자라면서 사회구조상 여남이 불평등하다는 걸 많이 경험해서 성교육에 관심을 갖게 됨.

2. 아하에 있을 때 좋아하는 시간(활동)은?

- 고양이 밥 주기, 화분에 물 주고 바라보기
- 바탕화면 필요 없는 것들 지우고, 휴지통 비울 때 짜릿한 쾌감
- 간식 먹으면서 수다 떨 때. 점심 빨리 먹고 누워서 유튜브 볼 때

3. 나의 소중한 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은?

- 무조건 싹 다 몰아서 떠납니다!!!!! 머나먼 곳으로
- 남들 안 갈 때 휴가 쓰면 제일 좋음. 애매한 계절 짱!
- 금요일 휴가! 목요일부터 즐겁고 불금 기분이 3배 정도 증가

4. 월요병을 견디는 나만의 방법은?

- 과자를 주워 먹는다.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중요한 일을 피한다.
- 티 안 나게 멍 때리기
- 화요일부터 주말에 뭐할지 생각하기…?
- 일요일에 먼저 출근하기…농담이고요. 그져 커피를 흡입합니다…

5. 아하를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 소개팅할 때 내가 하는 일 말해주니 자기 성상담해달라고;;
- 직업병처럼 친구들에게 노콘노섹 외치고 다님. 애인 때문에 피임 안 한다는 친구에게 큰소리로 성교육 시전함.

6. 교육, 활동, 상담할 때 기억에 남는 질문은?

-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에 남네요. 먹먹했어요.ㅠㅠ
- 선생님은 성에 개방적이라서 성교육 하는 거예요.?(아뇨 저 k-장녀라 억압을 많이 받아서 반대급부로 성교육 하는 거예요…또르륵)

11:30 ~ 13:30
1시간 점심시간

요즘은 코로나로 주로 배달을 시켜 먹거나 집에서 도시락을 싸온다.

12:40
오후 업무

상담팀은 상담 매뉴얼 제작, 사례 연구 워크숍, 교육팀은 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한다. 활동팀은 성문화 실태조사, 청소년 페미니스트 동아리 모임 준비, 영상 제작 등을 한다.

15:00
전체회의

게더타운으로 전체회의를 한다.

17:00 ~ 19:00
퇴근

각자 자리 정리를 하고 집으로 간다! 다만, 당직자는 야간상담이 끝난 9시에 퇴근한다.

7. 성교육(상담)을 하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된 부분은?

- 제 성적 지향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편견 덩어리였는데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려는 습관이 생김.
- 친구가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보았는데 그때 저에게 전화를 바로 주더라고요. 제가 아하에서 있었던 덕분에 친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8. 아하센터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전화는?

- 성관계를 했는데 2주가 지나도 월경을 안 하고, 임신테스트기를 해 봤더니 희미하게 2줄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걸려 왔던 전화
- 여잔데 자위를 하루에 몇 번까지 해도 되는지?

9.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 밖에서도 교육하고 있는 나를 볼 때… ㅎㅎ 그럼에도 몇 년째 제자리 인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하면 다 모른척하고 도망가고 싶음.
-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모든 혐오를 마주할 때.
- 나도 모르게 성차별, 이성애주의, 나이주의가 담긴 단어가 튀어나올 때…

10. 계속 아하를 다니고 있는 이유?

-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생각해주는 사람들
-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피어싱을 해도, 타투를 해도, 머리를 탈색해도, 츄리닝 바지에 슬리퍼 신어도 뭐라고 안 한다.
- 성평등한 세상,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서 먹고살 수 있다는 점.

11. 나에게 아하는 어떤 색깔 인가요....★?

- 빨간색, 파랑색, 초록색 / 삼원색이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 내서.
- 검정색, 하얀색 / 검은 세상에 하얀 점 같은 곳이다.

12. 앞으로 아하,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나요?

- 부유해지면 좋겠다!!!!
- 앞으로도 기죽지 말고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20살을 축하해요. 그리고 ing

33. 아하에게 바란다

36. 따박따박, 새로운 섹슈얼리티 문법 만들기

37. 아하비전

38. 아하에게 한마디

아하에게 바란다

아하!센터는 20주년을 준비하면서 코로나가19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전인 2020년 초반에 관련 전문가 집담회(FGD)와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아하!센터가 해온 일들에 대한 의미를 찾고 앞으로의 방향 모색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그 귀중한 기록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재구성하여 옮긴다. 비슷한 의견은 통합하여 작성하였고 같은 주제에도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대체로 더 많이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물론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은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할 것이다.). 이 글을 빌려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과 마음을 나눠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재구성하여 옮긴이 | **후리**

1. 다각도의 접근성 확대와 홍보

- 정부, 전문가 등이 신뢰하는 아하!센터지만 청소년들이 성관련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이 생겼을 때는 다른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청소년들이 아하!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일시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문화센터가 학교 및 지역사회와 좀 더 가깝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문화센터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교육이나 상담을 신청하는 참여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만 어린이나 청소년을 만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 성교육이 부재하다'고 이야기한다. 아하!센터라는 성교육 전문기관, 아주 선두적인 기관이 있는데도 왜 성교육이 부재하다고 말했을까? 공교육과 아하센터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기존 공교육에서의 성교육과 성문화센터의 성교육이 다름을 알리고 공교육과 전문기관으로서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성교육을 섹스 하는 법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니까 무엇이 성교육인지, 성교육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성문화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홍보해야 한다.

2.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콘텐츠 개발 및 청소년 참여 활동의 전환

- 아하의 정체성은 결과적으로 다 청소년을 위한 것인데 그 방법에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가르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같이 놀면서 스스로 성찰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참여의 장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 개별 청소년 모집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이제는 청소년 본인이 하는 일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아하!센터에서 청소년의 활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 자신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확신, 이 활동이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10~20대를 중심으로 성평등 이슈가 확산되었다.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론장

을 기획하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지원한다면 성평등 주체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이제는 '현장체험'보다는 가상의 체험이 가능한 게임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현장에서는 모여서 사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토의나 몸활동을 통한 공존과 평등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여야 한다. 게임, 만화, 스토리 등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활성화하고 유튜브 채널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 인터넷의 특징이 익명으로 터부시되는 것을 익살맞게 풀어내는 데에서 오는 쾌감을 느끼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평등하고 평화로운 성문화 '놀이터'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익적인 정보제공과 활동 공간 제공을 할 수 있다. 성평등 가치를 담은 동영상을 아카이빙 하거나 직접 제작해 올리고, 청소년으로부터 성적 호기심 관련 질문을 받고 거기에 응답하고, 대나무숲처럼 제보를 받거나, 주요 사회 이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벤트를 열어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3. 다양한 대상과 방법론에 맞춘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아하!센터는 참여형 성교육이 강점인데, 이제는 포괄적 성교육의 모델과 거점 만들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문화센터 실무자와 강사들이 포괄적 성교육의 전반에 대한 훈련을 거친 뒤 이를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는 대상(대안학교, 기관 등)에게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한 뒤 보편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보다는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직접 만나는 비청소년에 개입할 필요성을 느낀다. 문제는 청소년에 있다기보단 비청소년에 있는 경우가 많다. 교사, 청소년 상담사, 성교육 강사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내지는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현장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센터에서 교사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아하!센터가 성소수자 교육이라든가 급진적인 관점들로 인해 여러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더 앞장서서 이런 이슈와 주제들을 다루어주었으면 한다. 현재 성교육을 하는 여러 기관과 업체가 늘고 있지만 아하!센터만 한 인프라와 노하우, 관점을 가진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특히 센터의 장점인 체험형 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안 개발에 집중하고 널리 보급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 성별분리교육이 성별 이분법을 강화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 성별에 따른 성인식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경험에 차이에 집중하며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섬세한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남자 청소년 대상 성교육이 매우 필요한데 아하!센터에서 이전에 진행했던 남자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을 담론화해서 필요성과 효과를 확산하길 제안한다. 성교육자나 성상담자들이 성(평등)교육/상담을 여성의 경험 또는 피해자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청소년'의 경험은 놓치고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또래문화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변화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아하!가 가진 전문단체로서의 신뢰성과 수도권이라는 위치성, 주변 네트워크와 전문가들의 역량을 기반으로 전국 단위의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 할 필요가 있다. 중간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요구가 다양하지만 중간 조직 지원체계로서 기능하기에는 센터의 예산, 조직, 사업 등의 조정이 쉽지 않다. 현

장성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다양한 실험적 교육 실천을 통해 정리되는 교육 매뉴얼이 전국에 보급된다면 허브 기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전반적으로 성문화센터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 청소년 성인권의 현재성 가시화, 연구 및 정책 활동

- 교육만으로는 청소년 성인권의 실질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임파워링이 약할 수밖에 없다. 제도적 변화가 함께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가시화하면서 정책적 움직임에 동참하여야 한다.
- 청소년 목소리가 가시화되고, 역사에 더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아카이빙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와 홍보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청소년이 이용하는 센터이므로 UN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NGO 보고서에 적극 참여해서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것도 좋겠다.
- 교육 외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스쿨 미투 방지 등 다양한 관련 이슈에 캠페인, 문화 활동을 하고, 여기에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아하!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 집담회

- **일시·장소 :** 2020년 3월 2일(월). 16:00~18:00.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신관 304호
- **참석자 :**

  한채윤(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 **최윤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변혜정**(여성학, SEX & STEAKE 연구소 소장), **김대영**(전미대사관 교육담당 근무, I.M.I대표), **이명화**(아하센터 센터장), **박현이**(아하센터 부장) 이상 **6명**

전문가 개별 인터뷰

- **인터뷰 방법 :** 전화, 서면, 대면 인터뷰
- **전문가 인터뷰 참여자 :**

  김지혜(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 **오매**(한국성폭력 상담소 부소장), **이수연**(국가인권위원회 팀장), **김백애라**(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로리주희**(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김민영**(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 **루인**(젠더학자), **주현희**(링크컨설팅 대표), **이유정**(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손희정**(문화평론가), **선지현**(前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 주무관),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홍서희**(문화예술기획자), **하자청소년**(문제없는 스튜디오) 이상 **14명**

따박따박, 새로운 섹슈얼리티 문법 만들기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경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위티는 2019년 6월, 스쿨미투를 계기로 창립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네트워크입니다. 2018년 사회를 뒤덮었던 스쿨미투,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면 집을 나가"라며 청소년을 통제하는 친권자의 말들, 여전히 만 18세를 큰 전진으로 여겨야 하는 청소년의 참정권, 순결해야 하지만 동시에 섹슈얼적 메타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여성 청소년의 일상은 그 자체로 여성 청소년을 향한 이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보여줍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는 페미니즘만으로, 또 청소년 인권만으로는 대변되지 않는 '복합적' 차별을 경험합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남성 청소년들이 교실에서 어제 본 야동의 내용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을 때, 여성 청소년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성적 경험'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도 얻지 못합니다. 이는 여성 청소년이 성적 경험에 대해서 발화하는 것이 '문란하고, 순결하거나 여자애답지 않다는' 사회의 시선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시선은 일명 '쾌락통제법'이라고 불리는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금지하는 법안, 수박겉핥기 식의 현실과 뒤떨어진 성교육, 청소년의 성경험을 쉬쉬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견고히 만들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금기시하는 사회에서도, 이러한 금기를 부수고자 하는 움직임 역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위티에서는 자색고구미와 함께 '힐난도 수치도 자랑도 아닌 콘돔전시회'를 주최했습니다. 기존의 포르노적 문법에서 벗어난, 퀴어/여성/청소년의 성적 발화가 새롭고 자유로울 수 있는 '윤리적 지대'를 만들고자 했죠. 해당 전시회에서는 퀴어/여성/청소년 작가들이 직접 콘돔과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섹스를 주제로 작품을 창작하고 또 전시하며 새로운 섹슈얼리티의 문법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이 그 자체로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즐길 수 있으려면 섹슈얼리티가 '어둡고, 음침하고, 숨겨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아하'의 성교육과 성평등에 관련한 사업들 역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합니다. 특히 아하의 비전으로 공유하는 "청소년이 자신의 성에 대해 편안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아하의 사업들은 소년이 '성'을 멀고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닌,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간들이지요.

위티는 '아하'와 이러한 과정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위티의 2019년의 콘돔전시회, 2020년의 소식지 <따박따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고, 올해에는 자주 줌(ZOOM)으로 아하와 함께 다양한 성문화 내 주제들로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었지요. 앞서도 적었듯이, 청소년의 '성'이 음지의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위티가 콘돔 전시회처럼 기존 사회의 문법을 재정립하고자 했던 사업을 지원해 주셨던, 또 청소년들과 다양한 성문화 주제로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것은 그 자체로 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청소년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응원해 주셨던 '아하'의 활동이, 청소년을 주체로서 존중하며 평등하게 만나는 일과도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아하'가 만들어나가는 균열과, 성문화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시도와 이야기를 응원합니다!

아하 비전
(2021-2025)

비전슬로건

생명과 평화를 일구는 성문화, 10대들의 물결 만들기.

비전선언문

아하를 만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에 대해 편안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성적 주체로 인정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성문화를 이끄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미션

성인지적 성교육·상담과 문화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성문화를 일군다.

사업목표·과제

평화로운 성문화 주인공, 청소년 주체만들기

1. 청소년성문화공론장
2. 청소년참여자치활동지원
3. 청소년성문화생산플랫홈(축제, 공모전, 비평단, 또래강사단)

성건강 및 성권리보장 상담 지원

1. 청소년 성건강 및 성권리 위협 조기상담 채널 다각화
2. 디지털성폭력가해자 상담전문화 및 효과분석
3. 성상담사례컨텐츠보급
4. 상담주제별 가이드라인 보급

포괄적 성교육 현장실천 추진

1. 발달단계별 체험형 성교육프로그램 전문화
2. 아하메타버스ting
3. 포괄적성교육프로그램보급
4. 포괄적성교육 핵심주제별 프로그램개발 및 성과연구

청소년지원네트워크 강화

1. 성건강 및 성권리의제 관련기관네트워크
2. 위기청소년연계망구축
3. 성상담성교육전문인력양성
4. 국제네트워크관련기관 프로그램 및 인적 자원교류

우선과제

1. after 코로나19 디지털 세계 영향력 확장을 위한 시스템 및 인력 구축
2. 성별혐오, 안티페미니즘, 반동성애, 성엄숙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성과연구 강화
3. 대상별, 성별 맞춤형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4. 모두를 위한 남자청소년성교육연구소 인큐베이팅

아하에게 한마디

김영란 |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성문화, 그 모든 것과 나란히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갑시다.

고정애 | 에코젠더심리상담연구소 소장

청소년들의 다양한 성적감정과 욕구들을 존중받고 안전하게 오픈할 수 있는 곳!
아하 성문화센터 정말 고마워요!!! 미래 청소년들의 성문화 비전센터로 거듭나세요!

조아미 | 명지대 청소년학과 교수

앞으로 20년도 지금처럼 RUN RUN RUN

박애선 | 숙명여자대학교 행복상담센터 소장

4차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아하의 성문화 방향을 기대합니다.

최윤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아하센터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으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문화가 견고하고,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이 분명한 상황 속에서 아하센터가 이 모든 역할을 다 짊어질 순 없습니다. 그 한계 속에서도 할 일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응원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에서 보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성교육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포괄적 청소년 성교육 담론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하!센터가 더욱 가열차게 교육과 활동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우리 사회의 다채로운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아하가 되길! 청소년 성소수자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화정

오늘도 처음처럼. 당당하고 씩씩하게 옆 사람과. 손잡고 함께 갑시다.

김은주 |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동북권 소장

청소년이 성적 주체로서 살아가도록 지금처럼 함께 동행해주시길

김민영 |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

한국사회의 고루함과 식상함에 재기발랄한 파문을 일으켜온 20년 성교육 성문화운동 행보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저 해오신대로 굳건하고 꾸준하게 활동해주시면 이제는 우리 사회가 기민하게 응답하는 것으로 변화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김진태 | 한강미디어고등학교 교장

글로벌시대 다양함을 넉넉한 품으로 안주는 아하가 되시길~~

배정원 | 대한성학회 회장

아하의 '대단한' 20주년을 정말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행복해지는 성생활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세요. 아~하! 좋아요! 응원합니다!

박현이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센터장

십대들에게 온라인 접속이 일상이 된 상황속에서 아하센터가 주도적으로 십대와 성교육전문가, 온라인 개발자, 미디어 전문가들과 네트워크하고 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포괄적 성교육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십대들이 자신의 몸과 정체성,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하면서 성 주체성과 성평등 의식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남부원 |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지난 20년동안의 성취를 축하하며, 한국사회의 건강한 성문화와 진정한 젠더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하길 기도합니다!

김경호 | 강남향린교회

청소년 성문화에 대한 인식이 척박하던 시절 아하가 출발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듯이 앞으로도 더욱 굳세게 나아가시길

변웅재 | 법무법인(유한)율촌 변호사

아하!센터의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하! 하는 깨달음을 주세요.

이권명희 | 가치교육연구소-숨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가 위협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아하를 기대합니다.
더욱 가열차게 교육과 활동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명 | 전미대사관, 리더십코디네이터

아하의 20년 동안 아하가 제일 잘하는 '10대와 대화하는 방법 찾기'에 집중하고 확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늘 앞서갔기에 모진 바람도 맞았지만 성교육의 이정표가 되었던 아하에 감사드려요. 스무살의 아름드리 나무 아하를 축하하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세상, 그 변화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변혜정 | 섹스앤스테이크 대표

무조건 지지합니다. 그냥 가세요.

한채윤 | 한국성소수자인권센터

20년 전 아하!와 지금의 아하!는 똑같지 않습니다. 교육 내용이 바뀌었다면 아하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학 | 한국다양성연구소

앞으로도 계속 남자청소년 성교육, 성소수자 인권교육, 포괄적성교육의 메카가 되어 주세요! 늘 연대 하겠습니다.^^

김경민 | 한국YMCA연맹 사무총장

아하!센터 스무살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랜 시간 '성'이라는 낯설고도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과 함께 대화하는 장을 열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사회 건강한 성문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스무살 아하!는 ing

I·SEOUL·U YMCA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02-2677-9220 | www.ahacenter.kr